

준비되지 않은 통합돌봄의 현주소



전 용 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내년 3월이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노인과 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집과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 돌봄의 책임자로서 역할하도록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노력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이 법과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를 비롯해서 7개 학회와 참여연대가 성명서를 각각 발표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돌봄은 ‘모두’를 위한 권리로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안은 주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돌봄은 특정 연령층이나 질환을 가진 집단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동, 청년, 중장년층, 정신장애인 아동과 최근에 증가하

는 고립과 은둔한 대상자까지 생애 전주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돌봄 수요가 존재한다. 이처럼 제한된 대상만을 고려한다면, 결국 사각지대를 만들 뿐이다.

둘째, 이 법의 취지에 따르면, 지자체는 돌봄의 책임자이자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특히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노인 돌봄의 육구사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육구사정을 통해서 노인을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제대로 된 돌봄 계획서를 세울 수 있느냐!”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걱정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통합판정 도구는 지역기반 돌봄을 위한 사정도구가 아니라 당초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입소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다. 그런데 사회적 논의도 없이 갑자기 지역 돌봄에 사용하니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셋째, 이 법률은 지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핵심 업무도 대거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자체가 지

역 돌봄의 콘트를 타워로서 역할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핵심 업무를 전문기관에 떠맡기고 지역주민의 돌봄은 형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사업 초기부터 건보를 노인 사정의 단독주체로 설정한 것은 이같은 비정상적인 업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등 의존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넷째, 이 법이 시행되려면 지자체의 추가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전담조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나?”고 아우성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의 다양한 업무와의 재조정을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차선책도 있는데 부서간의 이해관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돌봄은 우리 삶의 방과제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전부처가 함께 이 법률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새로운 정부의 도래와 발맞추어서 미봉책이 아니라 과감한 제안을 해야 할 것이다.

/국립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스피 5000, ‘구호’ 아닌 ‘결과’가 되도록



허 정 윤

〈자본시장부〉

대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 있다. 바로 ‘코스피 5000’이다. 과거에도 주가지수 목표를 외쳤던 정치인들은 많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내 코스피 5000 돌파를 약속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코스피 3000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국내 경제 구조적 취약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시장 신뢰 붕괴까지 겹치며 공약은 힘없이 무너졌다.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섀넌법으로는 현재 지수 대비 2배 가까운 상승을 의미하며, 이는 국내 상장 기업들의 가치가 두 배 성장해야 가능한 일이다. 상장 기업의 실적

개선,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글로벌 자본 유치라는 단단한 토대 없이는 이루기 힘든 ‘이상’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가 주최한 자본시장 간담회에 참석한 한 리서치센터장은 “이 후보가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은 받았지만, 그 자리 자체가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고 정치인의 의지를 쇼잉(보여주기)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소회를 전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시장의 취약한 체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주가 조작, 불공정 거래, 테마

주 광풍 등은 시장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투자자 보호를 내세운 다양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단순한 표심 공략을 넘어 신뢰 회복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답해야 할 때다. 상법 개정 역시 지배주주 중심의 왜곡된 이사회를 바로잡고, 시장 신뢰를 높이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법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가 시장의 주축으로 떠오른 것도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다. 1000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이자 유권자들은 이제 단순한 소수 참여자가 아니라 시장 방향을 좌우하는 큰 축이 됐다. 그렇기에 자본시장 공약은 과거처럼 단순한 ‘구호’로 소비되면 안 된다. ‘코스피 목표치’는 대선 후보의 공약이 아니라, 건강한 시장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결과여야 한다.

/zelkova@metros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30일 (음 4월 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조직의 일에 상대방과의 계약관계를 잘 살펴라. 48년생 이직은 한 번 더 생각하자. 60년생 속 보이는 행동 자제. 72년생 과거에 뿌린 씨앗이 좋은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 84년생 신경성 질병으로 고생하니 건강을 생각.



37년생 직장이나 밖에서 이성에게 한눈팔지 않도록. 49년생 생각 없이 한 말이 원수가 될 수. 61년생 동료의 도움으로 어렵던 일 해결. 73년생 가스등 화재 조심할 것. 85년생 지나친 활동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외출을 삼가라.



38년생 새로운 계획으로 조직에 재물이 들어온다. 50년생 신용으로 주변을 개선하라. 62년생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74년생 일이 계속 이어지니 자긍심도 높여라. 86년생 지혜를 나눠 공유하니 주변의 화합이 함께 한다.



39년생 회를 내면 나만 손해이다. 51년생 능력이 안 되면 제발 성실하게라도 해라. 63년생 이성과 불화의 해결책은 헤어지는 것뿐. 75년생 열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다. 87년생 너무 자부심이 지나치니 혼자 피곤하다.



40년생 미래의 일은 닦치면 해결해나가도록. 52년생 집나간다고 행복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이혼은 신중. 64년생 변명보다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자. 76년생 오후에 음주는 주의. 88년생 병의 원인은 마음에서 시작된 듯.



41년생 배우자를 의심하여 불화가 이어진다. 53년생 아침부터 행운이 찾아온다. 65년생 복권에 당첨되려면 복권을 사야 되지 않겠는가. 77년생 이웃과 한 가지 이익을 두고 다툰다. 89년생 고집으로 인하여 일을 그르치니 신중해야만.



42년생 시간을 쪼개 보니 일이 산더미. 54년생 동료와의 불화가 있으니 양보하라. 66년생 이득을 위해 우기지 말고 질서를 존중. 78년생 재물이 목표였으나 나 혼자 남아 허망하다. 90년생 즐거움으로 인해 다소 과한 지출이 예상된다.



43년생 꿈꿨던 일이 문제해결에 도움 된다. 55년생 적극적인 행동과 운세가 행운을. 67년생 사고가 있으니 일찍 귀가하는 것이 상책. 79년생 삼재팔난이니 초하루기도를 해보는 것도 방법. 91년생 남의 일에 참견하려거든 올바르게 하라.



44년생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56년생 친구 따라가다 손해를 보니 경거망동 주의. 68년생 늦은 외출은 자제. 80년생 다단계에서 만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92년생 서두르지 말고 내부 문제를 들여다보아만.



45년생 방심하지 말고 급할수록 천천히. 57년생 현재의 환경과 동료들을 소중히 여겨야. 69년생 등을 돌린 이성에게 연연하지 않도록. 81년생 기본전환이 필요하니 산행이라도. 93년생 대표라도 현실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중시해야 할 필요가.



46년생 성실한 노력이 승부수다. 58년생 부동산에서 소식이 온다. 70년생 조금은 힘에 부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 82년생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행동을 개선해야 외면 받지 않는다. 94년생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 말을 듣다가 큰코다친다.



47년생 새로운 변화가 오지만 쓸데없는 참견은 미움을 산다. 59년생 고만하던 일이 해결된다. 71년생 음주는 하지 않아야. 83년생 삼재이니 자식 문제는 기도 발원으로 풀어가 보라. 95년생 투자에서 즉흥적인 판단은 바로 손실로 이어진다.



김상회의四季

인생의 만능키

만능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AI 시대가 개막되었다. 두려움도 만만치 않다. 전 세계적 현상만 보더라도 인간이 발명해 낸 산업기계가 인간의 노동시장을 대체해왔으며 이는 고용의 불안과 여러 사회문제를 동반해 왔다.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와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것이다. 인간 실존의 의미가 무색해지며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나 기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당연한 질서로 되어 가는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던 데카르트의 말이 무색해지며 인간보다 더 똑똑한 지능을 가진 AI가 철학적 사유와 판단까지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만물의 영장은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 AI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근 십 년 전 알파고가 등장했을 때도 충격이 컸었고 불안의식이 깊긴 했지만, 지금의 AI에 대한 불안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던 성싶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과거 시대에는 지금의 AI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주역(周易)이 아니었을까 싶다. 주역이야말로 자연과 인간, 더 나아가 우주의 생성원리와 변화하고 작용하는 이치를 음양 6호로부터 발전시킨 64괘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사면 인간사, 자연의 순환이치 등 그 어느 곳에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었다. 개인사는 물론 전쟁의 시작일과 승패 그리고 나라의 운명은 물론 치국의 이치까지 다루지 못하는 영역이 없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천지자연의 물리가 담겨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왕의 학문이라고까지 불렀다. 세상이사를 꿰뚫는 일종의 만능열쇠였다. 시간 앞에서 유한의 생명을 가진 존재,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로서, 생로병사를 뛰어넘기는 힘들다. 그러기에 더더욱 예측학문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경향은 없어야 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6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6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스도쿠3650

스도쿠3650

스도쿠365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6	9	8	1	7	2	9	8	2
7	1	2	6	2	8	8	9	9
9	6	2	8	9	7	1	1	8
8	8	9	1	1	9	6	2	7
9	9	7	8	2	1	1	6	
8	8	1	9	1	6	2	7	9
2	1	6	7	9	1	9	8	8

2	1	8	7	9	6	8	9	1
8	6	9	1	8	2	9	7	1
1	7	9	8	9	1	2	6	8
6	1	2	8	2	8	7	9	9
9	2	8	9	1	8	8	1	6
8	9	7	9	6	1	1	2	8
7	8	6	1	1	9	9	8	2
1	8	2	6	7	9	1	8	9
9	9	1	2	8	8	6	1	7